

경제

지역 건설업 회생 길 없나

③ 법정관리 남발도 문제다

유동성·수주 막히면 '회사 접는' 악성관행 없애야

마지막까지 자산 팔아 협력사 3300억원 결제한 대주건설 이례적

#1 가구 제조업체 A사는 주택건설업체 B사와 문짝과 레인지후드를 납품하고 있다. 지난 2009년 B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현장에 24억원어치의 제품을 납품했다. 하지만 B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건설했던 A사마저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가까스로 부도는 면했지만 B사의 법정관리 탓에 2년여 동안 고작 4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2 하도급업체 C사. 유명 증권건설업체 D사와 공사 계약을 했다. 하지만 D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이를 감했다. 공사 중간중간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했지만 D사는 차일피일 미뤘다. C사의 결제 성화에 D사는 금융권에 '의상담보대출'을 앞선했다. 그러다 D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의상담보 대출금은 고스란히 C사에게 털려기로 돌아왔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낳은 피해 사례다.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돼 하도급·협력업체는 공사·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영세 하도급업체는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데 반해 사업주는 관리인으로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건설사들이 유동성과 수주가 막히면 쉽게 법정관리를 택하는 이유다. 건설사의 부도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 지난 1995년 D그룹과 M건설의 연쇄 부도로 지역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당시 피해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했다. 수백 개의 하도급·협력업체가 무너지고, 2000여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렸다. 지역 금융계도 1000억원대의 대출피

해를 입었다. 부도 원인은 방만한 경영과 비자금 조성 등 사업주의 부도덕이었다. 특히 사업주는 재산을 은닉한 채 고의부도를 냈다. 반면, 부도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건설사도 있다. 지난 2009년 금융권에서 퇴출된 대주건설은 자산 매각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간 힘을 썼다. D그룹·M건설보다 규모가 커 엄청난 파장이 우려됐지만 비교적 원만히 수습된 배경이다. 당시 대주건설은 전국 각지의 사업장 300여 곳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 자금으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6개월동안 하도급·협력업체에 3320억원의 돈을 지급했다. 광주 수완대주파오레 72억원 등 어음 312억원의 결제를 했고, 순천 용당동 대주파크빌(307억원), 광주 수완대주파오레(211억원), 여수 문수동 대주파오레(223억원) 신축공사 등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1856억여원을 지급했다. 공사 자재를 납품한 협력업체들에게는 의상담보금 1151억여원을 지불했다. 최근 2~3년간 살아남 주택건설 현장 대부분이 당시 매각한 대주건설 소유의 사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가 많아졌다. 현재 광주지법 파산부가 관리하는 광주·전남지역 법정관리 기업은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3분의 1 이상이 건설사다. 법조계는 연관 기업이 많은 건설업종의 특성상 종합건설사 한 곳이 부도나면 사회·경제적 파장이 커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했다. 법정관리는 이미 부도가 발생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커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

다. 법정관리는 부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법정관리가 남발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한 모그룹이 계열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꼬리 자르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고의부도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도 법정관리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부실 건설사가 도태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건설한 하도급업체가 부실한 원도급업체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이 부도나서는 안된다"며 "생계비인 하도급 공사대금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액세서리 특가 행사 3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집화매장 직원들이 올 여름에 유행할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 2층 필그림(PILGRIM) 매장에서는 6월 1~3일 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이월상품을 50~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성능 비슷한 무선 전기주전자 부가 기능따라 가격은 5배 차이

국내에 시판되는 무선 전기주전자가 성능은 비슷한데도 가격은 5배 가량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부가기능을 장착한 제품이 꼭 필요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18개 무선 전기주전자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 중에는 국내 보국전자(모델명 BKK-127, 1만3900원) 제품이, 스테인리스 제품은 독일산 BSW(모델명 BS-1108-KS8, 3만6300원) 제품이 가격·품질·안전성 면에서 추천 대상에 올랐다. 소비자원은 "두 제품은 핵심

기능인 물 끓이기 성능이 우수하고, 마감처리가 잘된데다 물 넘침이 없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평가했다. 추가 기능 보유 여부에 따라 제품별 가격 차이가 컸다. 프랑스 제품인 테팔은 추천제품인 보국전자 제품과 기본성능은 물론 재질이 비슷한데도 알람, 물 온도 표시 등 추가 기능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추천품목보다 4.6배나 비쌌다. 게다가 법적 의무사항인 한글설명서도 없었다. 국내산인 PN중년, 동양매직, 세프라인, 퀴센스와 프랑스산인 듀플렉스 등 5개 제품은 물 넘침, 열관분리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FTA 발효 작년 3분기 이후 35억 6800만 달러 EU, 한국투자액 60% 이상 급증

작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3분기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투자액(IFDI)이 60.5%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 국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EU 회원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은 35억 6800만 달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16.4%), 2010년(-17.1%) 2년 연속으로 줄어든 EU의 IFDI가 유럽 재정위기에 도드라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IFDI(106억 5600만 달러) 증가율(-0.8%)을 크게 웃돈 것이기도 하다. 분기별 IFDI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7.6%, 4분기 90.7%, 올해 1분기 34.7%다.

업종별로는 화학(344%), 전기전자(186.8%), 운송용 기계(138.3%) 등 제조업 IFDI가 100.2%나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IFDI가 10%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비스업(19억 500만 달러)은 37.4% 늘었지만, 조세회피지역인 몰타로부터의 투자액을 빼면 3.1% 감소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투자(OFDI)한 돈은 36억 6300만 달러로 34.1% 줄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호주, 북미지역으로 다변화한 광업투자를 빼면 실질 OFDI는 28억 2699만 달러로 65.3%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OFDI 증가율(6.3%)의 10배 규모다. 특히 제조업은 섬유·직물·의류(1

천107.7%), 전기·전자(902%), 운송용 기계(394.1%) 등 대부분 업종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13.5%에 달했다. 서비스업 OFDI는 11억 7600만 달러로 7.9%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업 OFDI 증가율(-6.8%)과 비슷하다. OFDI에서 IFDI를 뺀 EU와의 외국투자 순유출(NFDI)은 9500만 달러로 1년전보다 32억4400만달러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NFDI 감소액은 36억6200만달러다. 광업을 제외한 순유출은 2억2900만달러 줄었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재정위기로 EU 역내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수합병(M&A) 기회가 늘어난 만큼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유망기업 인수를 위한 M&A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 연소득 5000만원이하로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6월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탁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6월7일부터 은행에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비용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공사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44.86 (-5.05)
코스닥지수	469.62 (-0.40)
금리 (국고채 3년)	3.35% (-0.01)
원·달러 환율	1,176.30원 (+1.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이태리가구 50% SALE
첫 파격세일 다음달 25일까지

소파, 식탁/좌탁, 라텍스 매트리스

쇼핑몰 www.hong79.com NAVER hong79.naver.com 검색

세계최고 수면과학 **던롭필로, 삼사, 라텍스 런칭기념**
(숙면을 원하시는 분 · 척추질환이 있으신분)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수면시 힘의 분포도

머리 5% | 어깨 15% | 척추 60% | 엉덩이 15% | 허벅지 5% | 종아리 5% | 다리 5%

라텍스, 소파, 식탁 신상품 입점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구도청앞) **홍스페이스** ☎ 1899-0240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영
*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 전국최다시공팀 직접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 여름엔 에어컨이 필요도 시원하다.
-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 장독대, 빨래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 고추는 땅에서 익히는 것보다 3~4배 더 잘익는다.
- 화학적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 반영구적이다.
- 화학적 방수제를 100리터로 다시 풀어 놓아도 완벽하게 방수된다.
- * 상기 특허 도를 및 이미지 도를서 개발비용이 법적 고액으로 청구될 수 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공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뭇건달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리터로 새로 옮겼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바람이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벌써 3년째 아무런 문제도 없게 고인물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이다. 시공을 했을 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동춘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 틀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홍 -

한능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